



반	번호

이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종 대왕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하고,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찬사를 받는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글,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글이 어떤 문자인지 설명을 부탁한다면 어떨까? 자신 있게 한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세종 대왕을 만나 볼까 한다. 한글을 만든 까닭이 무엇인지, 각각의 글자들을 어떤 원리로 만든 것인지,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는 문자인지 등을 묻고 그 답을 듣고자 한다.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 대왕을 만나러 가 보자.

1 이 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한글의 뜻
- ② 한글의 본래 명칭
- ③ 한글에 대한 평가
- ④ 한글의 창제한 사람
- ⑤ 한글의 창제 및 반포 시기

2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 속에 제시된 정보를 메모하며 읽는다.
- ②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하며 읽는다.
- ③ 문체를 통해 드러나는 글쓴이의 개성을 파악한다.
- ④ 주장하는 바와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 가며 읽는다.
- ⑤ 여러 곳을 다니며 알게 된 사실과 감상에 집중한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창제의 주인공, 세종 대왕을 만나다

(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세종 대왕: 말 그대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훈민정음을 만드신 건가요?

세종 대왕: 물론입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애초에 한자는 중국 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이기에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둘째, 백성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한자를 익히지 못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랜 시간 노력해야 배울 수 있는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다) 훈민정음을 창제·반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세종 대왕: 만들 때에도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서도 힘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가 있음에도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중국과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결국 훈민정음을 반포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문자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도 한자를 읽을 수는 있었다.
- ② 당시에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다.
- ③ 당시에 한자로도 충분히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 ④ 그 당시 한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였다.
- ⑤ 당시의 많은 신하들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단원 평가 1회

4 이 글에서 밝힌 한글 창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서
- ②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서
- ③ 오랜 시간 노력해야 배울 수 있는 한자는 불편해서
- ④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를 쓰지 않고 새 문자를 창제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 ⑤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은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자음’은 초성과 중성에 해당하고 ‘모음’은 종성에 해당하지요. 먼저 자음자를 만든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 제가 만든 자음자는 총 17자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ㄱ, ㄴ, ㄷ, ㅅ, ㅇ’ 다섯 자를 기본자라 합니다. 저는 이 다섯 자를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상형은 어떤 모양을 본떴다는 의미인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이 다섯 자를 만들었지요.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ㄷ’은 입의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기본자를 만든 뒤에는 이 글자들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지요. ‘ㄱ’과 ‘ㅋ’은 모양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 까닭은 ‘ㄱ’에 한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ㄴ, ㄷ, ㄹ, ㅇ’에 획을 더해 ‘ㄸ → ㅌ / ㄲ → ㅋ / ㄻ → ㅍ / ㅅ → ㅆ / ㅎ → ㅊ’을 만들었습니다. 아홉 자가 더 생긴 것이지요. ‘ㄱ, ㄷ, ㅂ’과 ‘ㅋ, ㅌ, ㅍ’을 발음해 보면 뒤편 것들의 소리가 더 거센 것이 느껴지지요? 이 거센 특성을 획을 더해 나타냈습니다.

(라) 이처럼 자음자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지만 그 예외도 있습니다. 이 예외에 속하는 글자를 이체자라고 하는데 ‘ㅇ, ㄹ, ㄷ’ 세 글자가 그것입니다. 이 글자들의 모양을 보면 각각 ‘ㅇ, ㄷ, ㅅ’에 획을 더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글자들에게는 획을 더해 더 강한 소리임을 나타내는 가획의 의미가 없습니다.

5 다음 중 훈민정음 자음의 기본자가 아닌 것은?

- ① \neg ② \perp ③ \sqsubset ④ \wedge ⑤ \circ

6 훈민정음 자음 17자 중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 3개를 모두 쓰시오.

()

7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글 자음자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자와 가획자는 서로 아무 연관이 없다.
- ②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자가 만들어졌다.
- ③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 ④ ‘ㄱ’보다 ‘ㅋ’의 발음이 거세지는데, 이러한 음성적 특성이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다.
- ⑤ ‘ㅅ’에 획을 더하여 ‘ㅈ’과 ‘ㅊ’을 만든 것은 이 글자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8 <보기>가 나타내는 한글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이르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ㄱ, ㄷ, ㅂ’과 ‘ㅋ, ㅌ, ㅍ’을 발음해 보면 뒤엣것들의 소리가 더 거센 것이 느껴지도록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서술형

9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글이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表音文字)인 까닭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 단 원 평 가 1 회

서술형

10 다음 글은 ‘병서’와 ‘연서’에 대한 설명이다. ‘병서’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만든 자음 17자 외에도 다른 자음자들을 본적이 있지요? 저는 이 17자를 활용하여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서’와 ‘연서’가 그 방법이지요. 먼저 병서는 () 방법입니다. ‘ㄱ, ㄷ, ㅂ, ㅅ, ㅈ, ㅊ’과 ‘ㅅ, ㅈ, ㅊ’처럼요. 연서는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쓰는 방법입니다. ‘ㄹ, ㅂ, ㅅ, ㅈ’이 그 예이지요.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제 모음자를 만든 원리에 관해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기억하지요? 모음의 기본자도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는데, 방금 기자의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더군요.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서 있었지요? 저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ㆍ’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습니다. 즉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삼재를 상형하여 만든 것이지요.

(나) 그리고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ㅡ’와 ‘ㅣ’에 ‘ㆍ’를 더하면 ‘ㅓ, ㅕ, ㅗ, ㅛ’가 되는데, 이를 초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ㆍ’를 다시 더하여 ‘ㅛ, ㅜ, ㅝ, ㅠ’를 만들었는데, 이 모음자들을 재출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ㆍ’와 ‘ㅡ’, ‘ㅣ’를 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는데, 이를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음 11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자음자와 마찬가지로 이 11자 외에도 다양한 모음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이 11자의 모음자들 가운데 둘이나 세 글자를 서로 합하여 다양한 모음자를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ㅌ, ㅎ, ㅚ, ㅖ, ㅘ, ㅙ, ㅞ, ㅟ, ㅢ’ 같은 글자들이 그 예입니다.

11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 ① ‘ㆍ’를 발음하는 방법
- ② 모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
- ③ 천지인삼재를 상형한 이유
- ④ 모음을 발음할 때 쓰이는 발음 기관
- ⑤ 오늘날 쓰이지 않는 모음자의 소멸 시기

12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글 모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모음 ‘ㆍ, ㅡ, ㅣ’를 초출자라고 한다.
- ② 한글 모음자는 모두 세 글자이며 천지인삼재를 본떠서 만들었다.
- ③ 모음 ‘ㆍ’에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ㅡ’와 ‘ㅣ’를 만들었다.
- ④ 한글의 모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자음 기본자를 창제한 원리와 같다.
- ⑤ 한글의 모음 기본자를 만든 것은 자음 가획자를 창제한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13 이 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모음자들은 초출자와 재출자 중 어떤 글자끼리 결합한 것인지 나누어 서술하십시오.

<보 기>

‘ㅏ, ㅑ’ / ‘ㅓ, ㅕ’

14 다음의 한글 모음자를 두 부류로 분류할 때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ㅓ ② ㅕ ③ ㅗ ④ ㅛ ⑤ ㅜ

서술형

15 이 글에 나타난 훈민정음 모음 초출자 창제 방식과, <보기>의 휴대 전화 한글 자판에서 모음 기본자 입력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십시오.

<보 기>

1 ㅏ	2 ㅑ	3 ㅓ ㅕ
4 ㅗ	5 ㅛ	6 ㅜ ㅠ
7 ㅡ	8 ㅣ	9 ㅣ
획 추가	0 ㅡ	쌍자음

소 단 원 평 가 1 회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세종 대왕에게 한글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세종 대왕은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가 다른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며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글은 만든 사람과 창제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이다. 한글은 세종 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문자이다. 둘째, 한글은 새롭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한글은 기존의 문자를 수정·보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낸 문자이다. 그리고 각 글자들이 연관되게 만들어졌다. 기본자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으며,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글자들은 그 글자 모양에서 공통점을 띠게 하였다. 입술소리 ‘ㄱ, ㄴ, ㄷ’의 모양이 비슷하고, 초출자는 ‘ㅇ’가 하나이고 재출자는 ‘ㅇ’가 두 개인 점이 그 예이다. 셋째,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하는 문자이다. 자음자와 모음자가 각각 따로 있는 문자들은 이를 한 글자씩 풀어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한 음절 단위로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글을 읽기도 편하고 의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6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렇게 복잡한 한글의 창제 원리를 굳이 알아야 해? 이런 거 몰라도 평소에 한글을 잘 쓰고 있잖아.
- ②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쓰던 한글 모음에 천지인삼재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어.
- ③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보는 건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큰 의미가 있어. 한글을 더 사랑해야지.
- ④ 일제 강점기 때는 한글을 쓰고 싶어도 못 썼잖아?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아 두는 건 우리가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 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점차 많이 알아 가고 있잖아? 한글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여길 텐데, 이 정도는 한국인으로서 교양으로 알아 뉘야 할 것 같아.

17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1) <보기>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특징과, (2) 그 장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 기〉

- 띄어쓰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 한라산: ㅎ ㅏ ㄴ ㄹ ㅓ ㅏ ㅓ ㅓ

18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ㄴ → ㄷ → ㅌ ㅍ → ㅂ → ㅍ
ㅈ → ㅊ → ㅊ ㅇ → ㅎ → ㅎ

- ① 글자 모양으로 글자가 수정된 과정을 알 수 있다.
- ② 글자 모양에서 한글이 모아쓰기 방식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글자 모양에서 한글이 풀어쓰기 방식임을 판단할 수 있다.
- ④ 글자 모양에서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임을 유추할 수 있다.
- ⑤ 글자 모양에서 한글이 창제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19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과제를 설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한 기존의 문자를 알아볼까?
- ②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반포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은 왜 걸린 것일까?
- ③ 한글이 창제될 당시와 지금 쓰는 한글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④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글자들의 구체적인 음성적 특성은 어떤 것일까?
- ⑤ 모아쓰기 방식의 장점만 나와 있는데, 컴퓨터를 쓰는 디지털 시대라는 점에서 단점은 없을까?

서술형

20 <보기>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영어의 알파벳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보 기〉

한글과 영어 알파벳에서, 같은 발음 기관에서 발음되는 비슷한 음성적 특징을 지닌 글자들의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글: ㄱ/ㅋ, ㄴ/ㄷ/ㅌ, ㅍ/ㅂ/ㅍ, ㅈ/ㅊ
- (2) 영어 알파벳: g/k, n/d/t, m/b/p, s/c